

신약성서의 성만찬 본문 탐구와 해석: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 본문을 중심으로
Explor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Lord's Supper
Texts in the New Testament:
Focused on the Texts in the Gospel of Luke and 1
Corinthians

윤석길 Mark S. Yoon
Ph.D,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Professor,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Azusa Pacific University

E-Mail : myoon@apu.edu

신약성서의 성만찬 본문 탐구와 해석: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 본문을 중심으로¹⁾

Mark S. Yoon

I. 들어가는 말²⁾

많은 교회가 교회력에 맞춰 중요한 절기나 특별한 기념일에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거행하는 예식이 성찬식이다.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최후의 만찬’ (Last Supper)과 견주어, ‘주의 만찬’ (Lord’s Supper)³⁾으로도 불리는 ‘성만찬’ (Eucharist, Sacrament, Holy Communion)⁴⁾은 그리스도의 부활 후 교회에서 행해지던 의식을 일컫는 용어다. 교회의 전통적 예전인 성만찬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최후의 만찬에 기원을 두고 있다. 수난 이야기에 포함하여 최후의 만찬을 전하는 공관 복음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복음서 전승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소개한 것이 그 바탕이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성만찬에 관련된 특정 구절을 찾아 탐구하고, 그것을 기초로 성서학적 접근방식으로 해석하려 한다. 현대교회의 성만찬 예식과 그에 관한 목회적, 신학적 담론이 성서를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려는 일종의 재해석 작업이다.

주요 논지는 다음과 같다. 1)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장면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단순히 주를 기념하라는 것이었는지, 2) 그 말씀을 준수하기 위해 제자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에 관한 신빙성 있는 근거가 사도행전이나 사도들의 서신서에 제시되는지, 3) 최후의 만찬이 제자들과 맺은 새 언약이라는 점을 주목하여, 주께서 제자들에게 행하라고 하신 다른 구체적 요청이 있었는지, 4) 주의 말씀을 따르는 현대의 제자와 교회는 성서적 해석의 결론을 어떻게 적용하여 실천할지 등의 주제를 다룰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텍스트를 간략히 탐구한 후, 그 텍스트가 자리한 콘텍스트를 고려하면서 해석을 제시하고, 현재의 성만찬 신학에 대한 새로운 해석학적 접근과 적용을 요청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교회에서 시행하는 성만찬 의식에서만 아니라 성만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주의 가르침을 원래의 의도대로 충실히 이행하고 깊이 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1) 본 논문은 필자의 저서인 단행본 『질문하며 읽는 바울신학』에서 다뤘던 주제를 발표의 형식에 맞춰 글의 구성과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참조 윤석길, 『질문하며 읽는 바울신학』 (신앙과지성사, 2022), 145-156.

2) 한국어로 된 선행연구 중 서울신학대학교 조갑진 교수의 글이 있다. 조갑진, “신약에 나타난 성만찬 연구” 『신학과 선교』, vol. 33, 1-22.

3) 주의 만찬, 즉 그리스어로 κυριακὸν δεῖπνον 이란 용어는 성경(고린도전서 11:20) 안에서는 바울이 최초 사용자다. Thomas R. Schreiner & Matthew R. Crawford, The Lord’s Supper (B&H Publishing Group, 2011), 156.

4) 카톨릭과 정교회, 성공회 등 전통적인 교회는 물론 개신교에선 루터교와 장로교 등에서는 Eucharist를 자주 쓰지만, 근래에 성장한 교단들 즉, 복음주의와 오순절 신학 전통의 계열에선 주의 만찬, 식탁교제, 공동식사, 빵을 나눔 등의 대중적인 용어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II. 분석을 위한 주요 텍스트

신약성서에서 명시적으로 최후의 만찬 혹은 성만찬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텍스트는 공관복음서(마가 14:22-26, 마태 26:26-30, 누가 22:15-20)와 고린도전서(11:17-34)다. 그 외 사도행전에서는 떡을 떤다는 간단한 설명이 나오고(행 2:42 등), 요한복음과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표현은 학계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올 정도로 공관복음 말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그와는 다른 전승으로 구별된다. 성만찬과 연관된 문서자료는 신약성서 외에도 디다케(Διδαχή)⁵⁾와 여러 초대교회 교부들, 예를 들면 이그나티우스⁶⁾, 순교자 저스틴⁷⁾ 등의 글에서 발견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유카리스티아(εὐχαριστία)라는 단어를 썼다는 특징이 있다.⁸⁾ 먼저, 공관복음에서 최후의 만찬 관련 텍스트의 대조를 살펴보겠다.⁹⁾

공관복음에 나타난 <최후의 만찬>

| 마태복음 26:26-30 | 마가복음 14:22-26 | 누가복음 22:15-20 |
|--|--|---|
| 26 저희가 떡을 떤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떤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 이니라 하시고 | 마지막 만찬(마 26:26-30; 눅 22:15-20; 고전 11:23-25) | 15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
| 27 또 잔을 가지사 사래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 22 저희가 떡을 떤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떤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 이니라 하시고 | 1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라 하시고 |
| 28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 23 또 잔을 가지사 사래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 17 이에 잔을 받으사 사래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
| 29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 24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 1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라 하시고 |
| 30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 25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 19 또 떡을 가져 사래하시고 떤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
| | 26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 20 저녁 먹은 후에 잠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 이라 |

첫 복음서인 마가복음에 기록된 최후의 만찬은 유대인들의 중요한 전통에 입각한 유월절 식사 장면을 연상하게 된다. 유월절 식사라면 당연히 준비해야 할 희생양 등을 언급하지는 않으나 이 만찬을 유월절 식사로 이해하였고,¹⁰⁾ 마태도 같은 입장이다. 이와 달리 누가복음은 마가의 전승을 받아들이는 한편 그 이외의 내용을 추가했다. 대표적인 예로는 19절 후반부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는 구절이다. 고린도전서의 표현과 일치하는 이 부분은, 수난절 최후의 만찬 당시의 시점이 아니라, 주의 부활 이후 교회가 부활절에 행하던 성만찬 예식의 일면이 반영된 것이라는 일부 학자들 주장의 근거이기도 하다.¹¹⁾

5) *Didache* 9:1.

6) Ignatius of Antioch, *Epistle to the Ephesians* 13:1; *Epistle to the Philadelphians* 4; *Epistle to the Smyrnaeans* 7:1, 8:1

7) Justin Martyr, *First Apology*, 66

8) Hans-Josef Klauck, “Lord’s Supper,” in David Noel Freedman,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3. (Doubleday, 1992), 362-363.

9) 대한성서공회가 제공하는 웹 자료.

<https://www.bskorea.or.kr/bible/korbibCompare01.php?version=GAE&book=mat&sec=428&rdoKind=1&fontSize=15px>

10) 이에 관한 종합적인 고찰은 아래 책이 참고할 만하다. Stéphane Saulnier, *Calendrical Variations in Second Temple Judaism: New Perspectives on the ‘Date of the Last Supper’ Debate* (BRILL, 2012), 3.

11) 마가복음 전승보다 더 추가된 부분을 부활절 때의 성만찬 의식 등에서 사용되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주장하는 전통적인 견해가 있다. H. Schürmann, *Teil enier quellenkritischen Untersuchung*

특정하여 부활절 성찬식의 반영인지의 여부는 여기서 논외로 하더라도, 이 구절이 초대교회의 상황을 반영한 것임은 바울의 서신에서 교회를 향한 교훈으로 활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근거 있는 주장이다. 아래에서 보듯 공관복음 안에서도 마태와 마가는 서로 유사하지만, 그와 달리 누가복음은 오히려 상당 부분 고린도전서와 닮았다.¹²⁾

311. The Last Supper

| Matt. 26.26-29 | Mark 14.22-25 | Luke 22. 15-20 <small>(no. 308 22.7-14 p. 280)</small> | John 6.51-58 <small>(no. 149, p. 140)</small> |
|---|--|---|--|
| <p style="text-align: center;">cp. v. 29</p> <p>26 Now as they were eating, Jesus took bread, and blessed, and broke it, and gave it to the disciples and said, "Take, eat; this is my body." 27 And he took a cup,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gave it to them, saying, "Drink of it, all of you; 28 for this is my blood of the ^e covenant, which is poured out for many for the forgiveness of sins. 29 I tell you I shall not drink again of this fruit of the vine until that day when I drink it new with you in my Father's kingdom." <small>(no. 315 26.30-35 p. 288)</small></p> | <p style="text-align: center;">cp. v. 25</p> <p>22 And as they were eating, he took bread, and blessed, and broke it, and gave it to them, and said, "Take; this is my body." 23 And he took a cup,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gave it to them, and they all drank of it. 24 And he said to them, "This is my blood of the ^e covenant, which is poured out for many. 25 Truly, I say to you, I shall not drink again of the fruit of the vine until that day when I drink it new in the kingdom of God." <small>(no. 315 14.26-31 p. 288)</small></p> | <p>15 And he said to them, "I have earnestly desired to eat this passover with you before I suffer; 16 for I tell you I shall not eat it ^h until it is fulfilled in the kingdom of God." 17 And he took a cup,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said, "Take this, and divide it among yourselves; 18 for I tell you that from now on I shall not drink of the fruit of the vine until the kingdom of God comes." 19 And he took bread,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gave it to them, saying, "This is my body, which is given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20 And likewise the cup after supper, saying, "This cup which is poured out for you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cp. v. 18</p> | <p>51 "I am the living bread which came down from heaven; if any one eats of this bread, he will live for ever; and the bread which I shall give for the life of the world is my flesh." 52 The Jews then disputed among themselves, saying, "How can this man give us his flesh to eat?" 53 So Jesus said to them, "Truly, truly, I say to you, unless you eat the flesh of the Son of man and drink his blood, you have no life in you; 54 he who eats my flesh and drinks my I Cor. 11.23-25 23 For I received from the Lord what I also delivered to you, that the Lord Jesus on the night when he was betrayed took bread, 24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25 In the same way also the cup, after supper,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p> |
| <p>blood has eternal life, and I will raise him up at the last day. 55 For my flesh is food indeed, and my blood is drink indeed. 56 He who eats my flesh and drinks my blood abides in me, and I in him. 57 As the living Father sent me, and I live because of the Father, so he who eats me will live because of me. 58 This is the bread which came down from heaven, not such as the fathers ate and died; he who eats this bread will live for ever."</p> | | | |

주의 만찬에 관한 문헌상 최초의 성서 기록은 50년대 초반에 쓰인 고린도전서 11장이다.¹³⁾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 받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를 방문하여 전도할 때 한 지역교회가 탄생했다. 그런데 후에 바울이 거기를 떠나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동안, 성찬에 대한 인식과 참여의 태도 등 고린도 교우들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불거져 바울에게 질문을 적어 보냈다. 바울이 이에 대하여 복음적 해법을 제시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1장에 수록된 내용이다. 당연히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반영해 (마가나 마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좀 더 세세한 교훈을 포함하였다. 고린도전서 11장의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공관복음 가운데서도 누가복음과 유사한데, 특히 “기념하라”는 구절이 주목되는 부

des likanischen Abendmahlsberichtes Lk 22.7-38. NTAbh XIX/5 (Münster, 1968). K.G. Kuhn, The Lord's Supper and the Communal Meal at Qumran, in The Scrolls and the New Testament (New York, 1957), 65-93, 259-265.

12) Synopsis of the Four Gospels, Edited by Kurt Aland, Revised. (United Bible Society, 1985), 284.

13) Eugene LaVerdiere, The Eucharist in the New Testament and the Early Church, (Liturgical Press, 1996), 1-2.

분이다. “기념하라” 고 번역된 우리말 성경 세 구절을 모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개역개정] 인용).

● 1. [누가복음 22:19-20]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 2. [고린도전서 11:24]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 3. [고린도전서 11:25]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마가와 마태는 간결하게 최후의 만찬 장면을 전하는 것과 달리,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는 좀 더 긴 내용을 똑같이 담고 있다. 첫째, 두 곳 모두 만찬 중에 “나를 기념하라”는 주의 말씀이 강조된다. 둘째, 평범한 유월절 만찬으로 그치지 않고, 만찬 중에 주와 제자들 사이에 특별한 언약이 맺어지며, 이를 일컬어 “새 언약”(ἡ καινὴ διαθήκη)이라 확실하게 정의한다. 이는 읽는 이들이 언약의 두 핵심축으로서 주와 제자들 사이에 어떤 준수사항이 결정될지 주목하도록 이끈다.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 본문은 여러 기록 중에서도 그리스도교회의 성만찬 신학과 예전의 직접적인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전승의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 최후의 만찬 중 새 언약이라 명명한 것은 구약성경에 소개된 몇 개의 대표적인 언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특수관계로 맺어진 언약 백성으로 규정되었듯¹⁴⁾, 이 언약에서 제자들도 어떤 그룹을 대표하여 그리스도와 특수관계로 묶이게 되는 언약의 당사자임을 확인하여 밝히는 것이다. 우선 누가복음을 기본으로 고린도전서의 해당 본문을 비교해본다.

[누가복음 22:19-20]

19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개역개정)

19 καὶ λαβὼν ἄρτον εὐχαριστήσας ἔκλασεν καὶ ἔδωκεν αὐτοῖς λέγων· Τοῦτό ἐστιν τὸ σῶμά μου [τὸ ὑπὲρ ὑμῶν διδόμενον· τοῦτο ποιεῖτε εἰς τὴν ἐμὴν ἀνάμνησιν· 20 καὶ τὸ ποτήριον ὡσαύτως μετὰ τὸ δειπνῆσαι, λέγων· Τοῦτο τὸ ποτήριον ἡ καινὴ διαθήκη ἐν τῷ αἵματί μου, τὸ ὑπὲρ ὑμῶν ἐκχυννόμενον]. (SBLGNT)

14) 구약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언약으로는 창세기 17장 아브라함과의 언약, 신명기 28장의 시내산 언약, 그리고 시편 132편 등에서 묘사된 다윗 언약을 꼽을 수 있다.

[고린도전서 11:23-26]

23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개역개정).

바울이 부활 등 매우 중요한 주의 가르침을 전할 때 쓰던 도입 문구 “내가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는 표현을 여기서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받아” “전하는” 이라는 두 단어는 당시 유대교 랍비들의 글에서나 헬레니즘 전통에서 중요한 무엇을 전승받아 전승하는 과정을 나타낼 목적으로 매우 흔하게 사용하던 방식이었다.¹⁵⁾ 바울은 이 가르침에 대해 주로부터 받아 전달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이 말씀의 권위를 유지하려 했다.

누가복음의 해당 구절을 보면 주께서는 손에 든 포도주를 가리켜 “새 언약의 피” 라고 밝히셨다. 이 표현을 그대로 담고 있는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이 언약 가운데 제자들의 의무 사항 한 가지가 제시되었는데 바로 언약의 당사자로서 제자들이 주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피” 라는 강렬한 이미지로 유추할 수 있듯, 이 만찬의 말씀을 예수의 죽음과 연결하여 이해하도록 촉구한다. 누가복음과 바울서신에 나타난 두 텍스트 사이의 관련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승’ 이라는 개념이 매우 적절하다. 바울이 서신을 쓸 당시에는 복음서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이미 교회의 핵심적인 복음이 그리스도의 말씀, 삶과 사역에 관련된 선포였으며, 그 내용은 얼마 지나지 않아 쓰인 복음서에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그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들에 의해 선포되고 일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공유되던 주요 메시지가 바울에 의해서도 활용된 것이다. 그런 전승의 대표적인 내용이 부활 전승과 함께 여기서 다룰 성만찬 전승이다. 바울은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 부활에 관한 교훈(고린도전서 15:3)을 전할 때처럼 여기서도 공식(formula) 같은 도입문을 사용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린도전서 11:23).

III. 고린도전서 11:23-26의 분석과 해석

1. 분석

성만찬은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나누셨던 최후의 만찬이 직접적이고도 확실한 배경이다.¹⁶⁾ 후대 교회는 예수의 최후 만찬을 곧 교회가 거룩히 성만찬을 행하도록 미리 제정하여 보여주신 것으로 받아들였다. 교회는 주의 만찬이라고도 불리는 성만찬 예전

15) 김세윤, 『고린도전서 강해 개정판』, (두란노아카데미, 2010), 294

16) 이에 관해서는 아래의 책을 참조하라. G. Wainwright & K.B.W. Tucker, The Oxford History of Christian Worship.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Howard Marshall, The Last Supper and the Lord's Supper. (Regent College Publishing, 2006); Brant Pitre, Jesus and the Jewish Roots of the Eucharist: Unlocking the Secrets of the Last Supper. (Crown Publishing Group, 2011); N. T. Wright, The Meal Jesus Gave Us: Understanding Holy Communion (Revised ed.).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5).

을 매우 진지하게 집전하면서 그 신학적 의미를 예배와 삶에서 실천하도록 역설해왔다. 여기서 텍스트를 더 잘 이해하려 할 때 놓칠 수 없는 부분은 제자들과 나눈 최후의 만찬이 단순히 유대 전통을 따른 유월절 식사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 제자들과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점이다. 모든 언약은 의무이행을 위한 두 당사자가 상대로 각각 존재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따라서 각각의 입장에서 이행할 의무 사항이 도출되는 과정이 따른다. 예수께서도 제자들과 새로운 언약, 이른바 새 언약(New Covenant)을 맺으셨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하실 일과 제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이 각각 정해졌을텐데 어떻게 결정됐는지, 그리고 그 전후 맥락에 따른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겠다. 헬라이어 원문과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손에 든 것은 떡이 아니라 빵이었다. 한글 성경에 편일물적으로 번역된 것과 달리 원문엔 모두 빵이다. 특히 이때는 유월절 기간이어서 무교병, 즉 누룩 없이 구운 맛없고 딱딱한 빵을 먹었다.¹⁷⁾ 한국교회는 빵이란 단어가 없었는지 해당 중국어를 떡으로 번역하였고, 그렇게 선입견이 고착되어 교회는 이를 빵이 아닌 떡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둘째, 그 빵을 나누실 때 예수께서 떼어 주신 것은 실제로 ‘깨뜨려’, 혹은 ‘부서뜨려’ 주신 것이다. 그 빵은 부숴야 작은 조각으로 나눌 수 있는 딱딱한 것이다. 떡이나 빵이냐의 질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빵이 딱딱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에 사용하신 빵은 옛적 조상들이 광야에서 겪은 온갖 고난,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며 먹는 일종의 회고 음식이었다. 예수께서 축사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깨뜨리신 것은 딱딱한 빵이었다.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대중적 인기를 끄는 부드럽고 달콤한 한국산 건강식 빵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음식이다. 예수께서 빵을 떼어 나눠주셨던 의미를 살리기 위해 하나의 큰 빵을 각자 떼어 자기 입에 넣는 최근의 성찬식은 떼어 나눈다는 면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긴 하나, 엄밀히 말하면 원래의 상태를 완벽히 재현한 것은 아니다. 이 구절에서는 이 빵이 거칠고 딱딱한 것이었다는 점이 방점이다. 한글 성경의 “떼어 나눠주셨다”라는 번역은 딱딱한 빵을 잘게 부숴 쪼개신 후 그것을 나눠신 사실을 이해하는 데 오히려 방해한다. 하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원래 의미를 가장 잘 살려 번역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이 아닌 우리말 찬송가다. 성만찬 예식에서 참석자들이라면 누구나 진지하게 부르는 찬송가 229장(아무 흠도 없고) 2절 가사의 번역이 그렇다.

2.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17) 레위기 23:5-6은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여호와의 율법이다. “정월 십사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십오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칠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개역한글). 신약에선 마태복음 26:17이 유대인들의 유월절 무교병 식사 전통을 확인해준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개역한글). 바울은 이 전통을 은유적으로 활용하여 고린도교회 교우들에게 음행을 벗어나 순결하게 살도록 가르친 적이 있다. 고린도전서 5:7-8,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개역개정)

셋째, 위에서 고찰한 어떤 텍스트든 딱딱한 빵을 쪼개 나눠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은 “나를 기념하라”가 아니라 “이것을 행하라”이다. 문법상으로도 ‘기념’은 명사이고, 이 문장의 본동사는 포이에이테(ποιεῖτε)¹⁸⁾, 즉 “행하라 (Do!)”이다. 복음서와 바울서신(고전 11:24)의 우리말 성경은 물론이고, 신학자들의 주석서에서도 거의 판박이처럼 예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번역했으나, 실제로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다. 문장의 구성요소로 볼 때 “기념하여”라는 단어는 실제로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 앞에 전치사가 붙은 형태로 부사구 역할을 할 뿐이다. 그런데 그것을 문장의 본동사로 바꿔 번역했다. 당연히 번역된 우리말은 원래의 문장구조와 성분을 벗어나 있다.

이런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간단한 헬라어 문장을 한국어와 영어로 분석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τούτο ποιεῖτε εἰς τὴν ἐμὴν ἀνάμνησιν (고린도전서 11:24d).

| | | |
|---------|-----------|--|
| τούτο / | ποιεῖτε / | εἰς τὴν ἐμὴν ἀνάμνησιν. |
| 이것을 / | 행하라 / | 나를 기억하여 (또는,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
| This / | do / | in remembrance of me (or, in memory of me) |

위 헬라어 문장을 한글 문법과 어순에 맞추어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나를 기억하여 너희도 이것을 행하라.

‘아남네시스’라는 단어만 보더라도, 기념이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기억’의 뉘앙스가 강한 단어다.¹⁹⁾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나 그 전승의 영향 아래 있는 마태에는 아남네시스(ἀνάμνησις)란 단어가 아예 없다는 사실도 특이하다. 그런 관점에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요구가 기념해달라는 것인지 질문하게 된다. 자기 몸이 상징하는 빵을 깨뜨려 나눠 주시던 주를 기억하면서 너희도 “이것을 행하라”라는 것이 주의 말씀이다. 이보다 간단하고 명확한 문장도 드물다. 그래서 이 구절은 단순한 기념, 생각, 묵상 등의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받아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실천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읽어야 한다.²⁰⁾ 교회 강단에 새겨져 낫익은 “나를 기념하라”는 문장은 오역의 산물이다. 이 부분에 국한하여 한글 성경 번역상의 아쉬움은 초창기 번역 당시의 배경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전통적인 성찬 교리로 기념설에 익숙한 당시 상황에서, 이 단어를 “기념하라”라고 번역한

18) 2인칭 복수 명령형이다.

19) 우진성, 「일점일획 말씀묵상」, “고전 11:24에 나타난 “기억”ἀνάμνησις에 대한 묵상”은 참조하기에 매우 유익한 짧은 글이다. 여기서 우박사는 “기념하다”가 아니라 “기억하다”로 번역하는 것을 지지하며, 단순히 “머리에 ~을 떠올리다”라는 의미 이상 어떤 행동에 대한 요청이 더해진 뜻으로 이해하여 미래의 구체적인 실천을 요청하는 것으로 풀이한다. 아래 자료에서 자세히 읽을 수 있다.
<https://ibp.or.kr/wordspostachio/?q=YToyOntzOjEYyOjRZl3b3JkX3R5cGUiO3M6MzoiYWxsljtzOjQ6InBhZ2UiO2k6MTc7fQ%3D%3D&bmode=view&idx=2751256&t=board>, 2018, 05, 23.

20) 우진성, 「일점일획 말씀묵상」, “고전 11:24에 나타난 “기억”ἀνάμνησις에 대한 묵상” 그 뜻풀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70인역을 꼼꼼히 활용하여 창세기 8:1; 30:22; 신명기 5:15; 7:18; 16:3, 12; 24:17-18 등을 성서적 근거로 들었으며, 신약에서도 베드로후서 1:12와 디모데후서 1:6을 예로 들어 자세히 설명한다.

것이 그 이후의 번역 과정에도 계속 영향을 미쳤고, 그렇게 한국교회 전반에 고착된 것이라 추정된다.

이 구절만 놓고 보면, 위의 관찰이 충실히 반영된 번역본으로는 영어의 NRSV(New Revised Standard Version), 그리고 한글의 [쉬운 성경]을 들 수 있다.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that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고린도전서 11:24, NRSV)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고린도전서 11:24, 쉬운 성경)

마찬가지로, 바울의 편지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전 11:25)." 라는 구절도 "나를 기념하여 마실 때마다 **너희도 이를 행하라**." 라고 번역했어야 한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여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주께서 몸소 피를 흘리신 사실을 기억하여, 언약의 일원인 주의 제자로서 자신의 감당해야 할 희생을 실천하라는 명령이다. 그것은 새 언약에서 제자들이 준수할 사항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한글 성경 가운데는 [쉬운성경]이 비교적 이 구절을 잘 번역했다.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고린도전서 11:25, 쉬운 성경)

예수께서 손에 드신 포도주를 가리켜 "너희를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 라고 선언하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 구약성경에 나타난 대로 유대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백성에게 낭독한 후, 나머지 피를 백성에게 뿌리도록 하셨다. 모세는 이를 일컬어 여호와께서 세우신 "언약의 피" (출애굽기 24:3-8)라고 백성들에게 공포하여 거기서 규정된 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전달했다.²¹⁾ 이처럼 새 언약도 주께서 누군가를 대리하여 제자들을 대표로 불러 맺은 언약이다. 다만 새 언약은 소나 다른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체결을 완성하셨다.

2. 해석:

1) 예수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이것(this)은?

21) 아래는 핵심적인 주요 부분이다

6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받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받은 제단에 뿌리고 7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와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출애굽기 24:6-8).

위와 같이 이해하고도 이 문장을 성만찬 제정, 혹은 초대교회 성만찬 시행의 근거로 보는 경우가 거의 압도적이다. 그런데, 문장의 구조와 흐름으로 볼 때, 또는 이 장면이 복음서에서 수난 이야기 (Passion Narrative) 속에 자리한 점을 고려할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언약을 준수하라고 말씀하신 ‘이것’ 이 곧 성만찬이었는지는 의문이다. 문맥상으로도 그렇다. 이를테면 쌀밥을 먹으면서 “쌀밥을 먹을 때마다 식사를 하라” 는 표현처럼 어색하다. 쌀밥 먹는 것 자체가 이미 식사이기 때문이다. 빵을 쪼개 나누는 행위 자체가 성만찬인데, 이미 성만찬 일부인 빵을 나누고 먹는 와중에, “빵을 먹을 때마다 성만찬을 하라” 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잔을 나눠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더욱 그렇다. 마실 때마다 행하라고 하신 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라면, 결국 그 문장은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포도주를 마시라’ 는 이상한 의미로 해석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것을 행하라” 고 하실 때 제자들이 행해야 할 “이것” 은 무엇일까? 이 문장의 목적어인 “이것” 을 언급하실 바로 그때 주께서는 빵을 쪼개서 나눠 주시는 중이었다. 좀 더 입체적으로 보자면, 지금 주께서는 현재진행형으로 빵을 부수어 쪼개는 행위를 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것을 행하라” 고 하셨다. 그러니 제자들도 주가 하신 것처럼 (행동)하라는 것이다. 주께서 친히 그 빵이 상징하는 몸을 쪼개 부수어 희생하시듯, 그 빵을 받는 제자들도 주께서 하신 것처럼 그들 자신을 희생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이다. 다시 반복하여 종합하면, 예수께서 자기 몸을 상징하는 빵을 들어 직접 깨뜨리신 후 그것을 모두에게 각각 나눠 주시면서 제자들도 이를 기억하여 자신을 희생하도록 요청하셨다는 해석이다.

그럼,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예고된 희생이 불가피한 상황을 직면하게 될까? 자연스럽게 26절이 이런 질문에 답을 제공한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이 충실히 행할 “이것” 은 복음 전파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을 고난과 핍박을 가리킨다. 당시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만으로도 핍박의 표적이 되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보다 더한 고난, 즉 죽음도 불사할 정도의 각오가 없으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으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에서 우리말로 ‘증인’ 이라 번역된 원래의 단어는 ‘순교자’ 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리스도의 언약에 참여하여 그 일원이 된 것과,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 그렇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일이다. 죽음의 자리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를 기억하여 그 죽음을 알리는 증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과 똑같이 자기 몸을 부수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희생적 삶과 희생적 죽음을 모두 포함한다고 하겠다. 이것이야말로 죽음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뤄가는 여정을 나타낸다.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은 모든 집에서 식사 때마다 반복되는 일상의 반영이다. 그런데 유월절을 맞아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믿음으로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것이 관례인 이 공동식사지만, 정작 예수께서 함께하신 사람들은 부모 형제 등 가족이 아닌 제자들이었다. 이는 공생애 기간에 이미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친족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어서) 누구라도 완전히 새로운 질서의 하나님 나라에서 새 가족이 된다는 말씀의²²⁾ 적용인 셈이다. 더 나아가, 그 빵을 쪼개서 나눠주는 행위가

22) 마가복음 3:31-35. 그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3)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32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 서서 찾나이다 33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34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의미 있는 이유는 이 빵을 주님의 몸이라고 특정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될 때의 비참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미리 예시하신 것이다. 빵이 상징하는 몸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피는 “희생제사와 순교를 가리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용어들”²³⁾이기도 하다. 이렇게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주신 주님을 기억하여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이것을 행하라고 하셨으니,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자신들도 주님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하라는 엄중한 요청으로 이해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행하라고 분부하신 행위를 성만찬 의식이나 그에 대한 기념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이 구절이 예수께서 성만찬 의식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거라면,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성령을 받고 사도로 거듭나서 죽도록 충성하던 제자들에게는 성만찬 예식을 잘 준비하여 장엄하게 행하는 것이 최고의 순종이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성경에서도 사도들이 그것을 주의 명령으로 받들어 행했다는 많은 사례들을 전하지 않았을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진출하여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의 충성은 곧 그렇게 명령하신 주의 말씀을 따른 결과이듯이 말이다. 그러나 사도행전 등 성경은 물론 교회 역사를 통해 알려진 다양한 기록을 보더라도, 사도들 대다수가 극심한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걸었다. 이런 역사는 제자들도 이 언약에서 제시된 주의 말씀, 즉 성찬을 먹고 마시는 자는 주를 기억하여 주의 오심을 전하는 순교적 희생을 필수적인 사명으로 인식하여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성찬의 신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초대교회 시절, 특히 로마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극심할 때 카타콤 등에서까지 성찬을 행했던 흔적도 교회사가들에 의해 잘 알려졌다. 그뿐 아니라 실제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성찬 참여 중 신비체험을 통한 신앙 제고와 그에서 비롯된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영적이고 실천적인 경험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현상이다. 심지어, 성찬이 신자의 심리치료에도 효과적이라는 결론의 연구논문도 발표된 적이 있다.²⁴⁾ 하지만 경건하고 진지하게 성찬을 행해야 하는 당위성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바울이 밝힌 대로 고린도교회에서도 이미 성찬에 대해서 알았고 또 시행하고 있었다. 바울이 아니었으면 교회가 성찬을 시행했던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없었을 수도 있다. 최소한 고린도교회에서는 성찬이 필수적이고 중요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다. 왜냐하면 주의 만찬은 예수님에게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에 기반하고, 이미 신학적 의미도 상당하기 때문이다.²⁵⁾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도 바울은 성찬을 거룩하고 의미 있게 시행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함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2) 새언약(New Covenant)

고린도전서의 텍스트를 분석할 때 기념 혹은 기억의 대상을 정확히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승을 활용하는 바울의 이해에서 고린도전서에 드러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관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5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함께 보면 좋은 병행구절: 마태 12:46-50; 누가 8:19-21.

23) 윤철원, 『누가복음서 다시 읽기: 내러티브의 구조와 세계』 (이레서원, 2001), 427.

24) 참조, 전요섭, 김양중, “성찬의 심리치료적 효과” 『신앙과 학문』, 제 12권 3호, 255-281.

25) 톰 라이트, 모든 사람을 위한 고린도전서, 이철민 역, (IVP< 2003), 192.

점을 주목하면, 우선 만찬에서의 빵과 포도주의 나눔은 거기 참여한 공동체가 예수의 죽음 이야말로 모든 타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 죽음은 바로 새 언약의 출발점임을 인식하는 것이다.²⁶⁾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 상징적 행위를 통해 교회라면 예수의 죽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특히 분열과 다툼이 잦은 고린도 교회가 이를 반드시 기억해야 마땅한 상황에 이르자 이전에 이미 전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여 전하는 것이다.²⁷⁾

최후의 만찬에서 주께서 제자들을 상대로 하신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가장 의미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이 유대의 전통 방식을 따라 하나의 새 언약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최후의 만찬이 주와 제자들 사이에 맺어진 일종의 언약식이었는 인식이 중요하다. 새 언약이란 이전 것과 달리 새롭게 별도로 체결된 언약이다. 모든 언약은 기본적으로 집단이든 개인이든 둘 이상의 당사자가 참여해야 성립된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상대편이 되는 대상은 당사자 본인은 물론 어떤 공동체나 그룹의 대표 자격으로 참여했다. 여기서도 제자들은 열두 명 본인들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모든 유형의 제자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언약이 성립되려면 언약의 두 주체가 각각 지켜야 할 내용이 의무로 규정되어야 하고, 동시에 그 내용에 대해 상호 동의해야만 가능하다. 새 언약의 내용이 최종 선포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반드시 그런 상호 공감과 수긍의 과정을 거쳤을 것이 틀림없다. 이런 면에서 언약에서 각각 준수하기로 규정된 계명은 일방적인 지시나 명령과는 다른 유형의 말씀이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몇 차례 중요한 언약을 맺으신 사례가 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많은 자손과 땅을 약속하셨고, 모세와 맺으셨던 시내산 언약에서는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시리라는 내용이 신명기 28장에 잘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시편 132편에 반영되어 그려진 다윗 언약에서는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하여 평화를 가져온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약의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언약이 하나님께서 각 시대를 대표하는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다윗을 각각 상대로 불러 맺으셨듯이, 새 언약도 새롭게 도래할 교회의 시대를 앞두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대표로 세워 맺은 언약이다. 다른 특징이 있다면 모세와의 언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뿌려진 것과 달리 새 언약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가 강조됐다는 점이다.

3) 신약성경 안에서의 비교

신약성서에는 이 만찬 전승과 더불어, “이를 행하라” 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두 차례 더 등장한다. 누가복음의 선한사마리아인의 비유(눅 10:37)와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요 13:15)이 이에 해당한다. 먼저, 선한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지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그에게 질문을 바꾸어 던지시자, 율법사가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라고 대답할 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고 결론처럼 간결하게 말씀하신 게 좋은 예다. 이 말씀이 인종이나 종교적 편견을 뛰어넘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인간애를 실

26) Richard B. Hays, *First Corinthians*.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Louisville, KY: John Knox Press, 1997), 199.

27) 고린도전서 11:23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이란 표현대로 바울은 이미 고린도교회에 이 성찬에 관한 가르침을 전했던 상황이다.

천하라는 교훈이지, 어떤 제도나 조직을 구성하여 의식이나 행사처럼 정성껏 집행하라는 말씀은 전혀 아닐 것이다.

요한복음에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제자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너희도 이를 행하라!” 이 장면도 위의 비유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 씻는 행위를 근거로 그것을 의식이나 예전처럼 보존하고 실행하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낮추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신 섬김의 자세를 실제 사도들의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주의 가르침이었을까?

이 이야기를 바탕 삼아 발 씻는(Foot-washing) 의식을 강조하여 태동한 미국의 한 개신교 교단이 있다. 그들은 현재도 사순절 기간 가장 중요한 예식으로 여겨 이 의식을 진지하게 집전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거룩한 예전으로 시행하는 과정에 불필요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논쟁에 휩싸였는데, 예수께서 제자의 발을 씻겨 주실 때 먼저 씻어 주신 발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었다. 먼저 씻을 발이 오른쪽이라고 힘겹게 결론을 낸 다음엔 제자의 기준에서 오른쪽인지, 예수께서 보실 때 오른쪽인지 또 다른 논쟁 끝에 급기야 교회들이 분열하고 말았다. 그렇게 분리 독립하여 각각 세운 교단이 오른발교회(Right Foot Church)와 그 반대편 신념을 고수하는 분파의 왼발교회(Left Foot Church)다. 발을 씻어 주신 후 너희도 이같이 하라는 말씀을 하나의 의식으로 시행하라고 오해하여 생긴 어이없는 사례다. 이런 논쟁을 외부의 관점에서 지켜볼 때, 딱딱한 빵을 부순 뒤 나눠주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행하라고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현명할지 성찰하게 된다.

4) 성만찬 신학 논쟁의 대략적인 역사

최후의 만찬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교회 전통에서 중시하는 ‘주의 만찬’ 전통에 나타난 예수님의 명령을 “기념하라”는 말씀으로 해석한 역사는 유세비우스부터 암브로시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를 지나며 상징설과 기념설을 주장하던 3-4세기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역사가 길다. 그 가운데 화체설이 교리로 발전하게 된 것은 11세기 교회 대분열 이후, 본격적으로는 13세기 카톨릭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²⁸⁾

화체설과 관련해서는, 그 빵이 그리스도의 진짜 살인지, 아니면 빵에서 살로 바뀌는 것인지 긴 세월 신학적인 논쟁과 그에 따른 투쟁을 지속해 왔다. 그리고 빵이 실제 ‘살로 변하는 것’ (化體, transubstantiation)이라면 실제 어느 순간에 변화가 이뤄지는가에 대한 이해도 당시 성만찬 신학에서 논란거리였다. 빵과 포도주는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흘린 사제는 심한 경우 손가를 잘라서 벌하기도 했다고 하며, 심지어는 성만찬 예식 도중 실수로 바닥에 떨어진 빵을 엮드린 채 혀로 입에 집어넣는 일도 있었다니, 이런 화체설의 대안으로 기념설이나 상징설이 대두된 것은 자연스러운 발전이었다. 개혁자들 가운데는 이런 화체설 적용과정의 극단적 행위를 성체 숭배라는 다소 거친 용어까지 사용하여 우상숭배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는 이도 있었다. 전통적으로 카톨릭교회는 성찬에 관한 한 철학적이고 합리적인 고찰보다 신비주의적 접근을 통해 긴 기

28) 성찬을 둘러싼 교리의 역사에 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할 수 있다. J.N.D. 켈리 저, 박희석 역 『고대기독교교리사』 (서울: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베른하드 로제, 차중순 역, 『기독교 교리의 역사』 (서울: 목양사), 1990; John H. Armstrong, Understanding Four Views on the Lord's Supper. Zondervan, 2009.

간 화체설을 유지하였고,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실재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가르치고 있다.²⁹⁾

개신교의 성찬론 이해는 다양성을 보이는 게 특징이다. 우선 루터파 신학에서는 공재설(consubstantiation)을, 개혁주의 장로교회에선 기념설 혹은 상징설, 아니면 영적 입체설을 따른다. 비교적 최근엔 루터와 칼뱅의 성찬 이해는 서로 차이가 없으며 표현만 다른 것이라는 인식을 영자가 공유하기에 이르렀다.³⁰⁾ 성찬 신학을 두고 이전에 보였던 교파간의 극렬한 대립과 갈등은 잦아든 것 같다. 그렇다고 성만찬에 관한 성서의 가르침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한국교회는 초창기부터 목회자가 부족한 상황에다가 성만찬 등 전통적인 예전보다 설교를 중시하는 예배가 뿌리내리면서 성찬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었고, 그 전통이 지속되는 현실이다.

IV. 결론:

1. 너희도 이를 행하라 (Do This!)

성찬식에 부드러운 빵을 정갈하게 썰어 예쁜 성구에 담아 놓은 모습에서는 유월절에 준비하여 깨뜨려 나누던 딱딱한 빵을 연상하기 어렵다.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나눠주시기 위해 그것을 깨뜨리신 것은 자기 몸을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는 주님의 희생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만찬이 유월절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자리였고,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구원역사에서 정점에 자리한 사건임을 안다면, 빵과 잔을 들어 몸과 피를 상징하여 강조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구현될 구원의 강력한 메시지다. 출애굽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차원에서 재현되리라는 희망을 설교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마지막 만찬의 교훈은 희생적 삶과 희생적 죽음을 모두 포함한다. 제자들을 향해 “이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친히 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각자 자신을 희생하라는 요청이요 확인이다. 성만찬 의식을 통해 기념하라는 정도의 말씀으로 대체하여 이해하는 것은 실체와 거리가 있어 보인다.

2. 새 언약의 일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고린도후서 3:6a).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새 언약의 일꾼” (Minister of New Covenant)이라 정의했다(고후 3:16). 그리스도인이란 자기를 희생하여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다. 주목할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는 이유가 성만찬 예식의 특정 순서에서 문제가 파생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점이다.³¹⁾ 고린도가 당대 문화에서 자유분방한 도시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교인들의 성적인 부도덕과, 각기 선호하는 지도자들을 내세우며 형성된 파당 또는 분열 양

29) 『한국 천주교 예비 신자 교리서』 제3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8), 147.

30) 소위 “로이엔부르크 합의서”가 이런 현상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아래 책을 참조하면 유익하다. 최주훈, 『루터의 재발견』, (복있는 사람, 2017).

31) Richard B. Hays, *First Corinthians*.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Louisville, KY: John Knox Press, 1997), 193.

상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교회의 근간을 위태롭게 했다. 그들은 예배를 위한 모임에서도 영적 질서 대신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쉽게 드러냈고, 따라서 주의 죽으심을 선포해야 할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여러 면에서 부족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복음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과정에 이 중요한 내용을 목회적인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럼에도 역사적으로 그리스도교회는 이 말씀을 예전 혹은 예배 의식이라는 신학적 사고의 틀 안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후의 만찬이 유대인 누구에게나 익숙한 그들의 일상적인 식사 장면을 뛰어넘어 새 언약의 시점이기도 했다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도외시한 채 기념하라는 문자에 집착해왔기 때문이다. 바울이 이 전승을 “주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강조하는 것은 어느 가정에서나 나누던 식탁의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속적) 죽음과 결부시켰음을 밝히고, 동시에 그런 연유로 일련의 식사 과정이 사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새 언약의 배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3. 해석학적 반성(Hermeneutical Reflection)

그리스도의 이 준엄한 명령을 기념설과 상징설쯤으로 이해하거나, 성찬식 때 단순히 눈물 흘리며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슬퍼하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될 일이다. 성찬식을 얼마나 경건하게 준비하여 진행하고 거기에 신학적으로 얼마나 치밀하게 의미를 부여할지의 노력 못지않게, 어떻게 성찬의 가르침을 주의 제자이기도 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에 반영하여 드러내는지가 핵심적 관건이다. 희생을 통한 해방, 낮아짐과 비움을 통한 화해, 내려놓음을 통한 일치의 실천이야말로 그리스도와의 언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의 죽으심에 대한 선포가 성만찬 예식에 수반되는 설교로 그쳐서는 안 된다. 오히려 깨뜨린 빵과 부어진 포도주를 공동체가 나누는 것 자체가 선포의 결과이며, 모두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죽음의 유익에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주께서 행하라고 하신 행위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강조한다(20절). 문제는 그들이 성만찬 예식을 제대로 거행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주를 기억하는 동기에서 비롯되어야 할 말씀의 실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유지되는 성만찬에 관련된 모호함은 더 이상 주의 죽음이 이뤄놓은 결과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지금 나에게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다.³²⁾ 그런 면에서 지금 보통의 교회가 1년에 한두 번 실시하는 성만찬 예전의 횡수를 대폭 늘리고 동시에 (전통이 아닌) 성서가 전하는 가르침을 가감 없이 받아들여 희생적인 삶을 실천하도록 강조한다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영성 회복과 신앙 성장에도 매우 유익할 뿐 아니라, 바닥에 떨어진 교회의 사회적 평판을 회복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32) 김세윤, 298-299.

참고문헌

기독교 고전

Didache

Ignatius of Antioch, Epistle to the Ephesians

Ignatius of Antioch, Epistle to the Philadelphians

Ignatius of Antioch, Epistle to the Smyrnaeans

Justin Martyr, First Apology

단행본

김세운, 『고린도전서 강해』 개정판, 두란노아카데미, 2010.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편, 『한국 천주교 예비 신자 교리서』 제3판, 2018.

윤철원, 『누가복음서 다시 읽기: 내러티브의 구조와 세계』 이레서원, 2001.

최주훈, 『루터의 재발견』, 복있는 사람, 2017.

베른하드 로제, 『기독교 교리의 역사』 차종순 역. 서울: 목양사, 1990.

J.N.D. 켈리 저, 『고대기독교교리사』 박희석 역,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툼 라이트, 『모든 사람을 위한 고린도전서』 이철민 역, IVP, 2003.

논문 및 인터넷 자료

전요섭, 김양중, “성찬의 심리치료적 효과” 『신앙과 학문』, 제 12권 3호, 255-281.
대한성서공회,

<https://www.bskorea.or.kr/bible/korbibCompare01.php?version=GAE&book=mat&sec=428&rdoKind=1&fontSize=15px>

우진성, 「일점일획 말씀묵상」, “고전 11:24에 나타난 “기록 ἀνάμνησις에 대한 묵상” 2018, 05, 23.

<https://ibp.or.kr/wordspostachio/?q=YToyOntzOjEyO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ljtzOjQ6InBhZ2UiO2k6MTc7fQ%3D%3D&bmode=view&idx=2751256&t=board>

해의 저서

Armstrong, John H. Understanding Four Views on the Lord's Supper. Zondervan, 2009.

LaVerdiere, Eugene. The Eucharist in the New Testament and the Early Church. Liturgical Press, 1996.

Hays, Richard B. First Corinthians.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Louisville, KY: John Knox Press, 1997.

Klauck, Hans-Josef. “Lord's Supper,” in David Noel Freedman,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3. Doubleday, 1992, 362-372

Kuhn, K.G. The Lord's Supper and the Communal Meal at Qumran, in The Scrolls and the New Testament (New York, 1957), 65-93, 259-265.

- Marshall, Howard. *The Last Supper and the Lord's Supper*. Regent College Publishing, 2006.
- Pitre, Brant. *Jesus and the Jewish Roots of the Eucharist: Unlocking the Secrets of the Last Supper*. Crown Publishing Group, 2011.
- Saulnier, Stéphane. *Calendrical Variations in Second Temple Judaism: New Perspectives on the 'Date of the Last Supper' Debate*. BRILL. 2012.
- Schreiner, Thomas R. & Matthew R. Crawford, *The Lord's Supper*. B&H Publishing Group, 2011.
- Schürmann, H. Teil einer quellenkritischen Untersuchung des lukanischen Abendmahlsberichtes Lk 22.7-38. NTAbh XIX/5. Münster, 1968.
- Synopsis of the Four Gospels*, Edited by Kurt Aland, Revised. United Bible Society, 1985.
- Wainwright G. & K.B.W. Tucker, *The Oxford History of Christian Worship*.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Wright, N. T. *The Meal Jesus Gave Us: Understanding Holy Communion* (Revised ed.).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5.